



는 재료는 골유착성을 보유하고 있는 티타늄이 주종을 이루며, 형태는 미니플레이트와 미니스크류 임플란트 그리고 온플란트(Onplant)가 있다.

골내고정원교정에서 현재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치밀골에서 유지력을 얻는 미니스크류이다. 미니스크류는 그 자체 만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미니플레이트의 고정에 동원되어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미니스크류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매식 직후 교정력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임플란트 또는 온플란트는 골유착이 일어나는 동안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골유착이 발생되면 적용되는 교정력에 충분히 저항하면서 탈락의 가능성이 적다.

골내고정원의 선택에는 교정력의 적용시기, 탈락율과 같은 차이점에 추가하여 매식과정 그리고 교정의가 어떠한 목적으로 골내고정원을 사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매식과정이 교정의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지 또는 난해도로 인하여 구강외과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와 교정력의 유도형태가 단순히 한 방향(1차원)만으로도 충분한지 또는 2차원 내지는 3차원적인 교정력이 유도되어야만 하는지가 감별되어 골내고정원이 선택되어 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본인은 여러 형태의 골내고정원을 사용하여 얻어진 치료결과를 상호 비교한다면 이는 올바른 골내고정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대한치교교정학회 제 35회 학술대회를 통해 교정학회 회원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 OP-14 구연

### 설측교정치료의 Retraction Mechanics(Update)

김태원

대한설측교정연구회

심미적인 이유로 설측교정치료의 발치증례에서 6 전치의 동시 후방견인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발치증례의 후방견인 도중 전치부의 공극을 방지함으로써 심미적인 교정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6 전치의 동시 후방견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1) 상악의 후방견인속도가 하악에 비하여 다소 빠르다. 따라서 하악 전치의 설측경사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 (2) 견치부의 관계에 의하여 상,하 교합간섭을 초래함으로써 후방견인도중 견치의 치축경사조절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3) 전치부의 피개가 밀접한 경우 후방견인력과 동시에 부여되는 Lingual Root Torque의 전달이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기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2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Set-up Model에서 Prescription의 부여
- (2) Step Up & Down Wire

임상에서 두 가지 해결방법을 응용하여 치료과정을 단순화하여 진료시간의 단축과 함께 치료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관찰하였다.